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1강 : 아제아제 바라아제 -지혜제일 사리불

강사: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0.5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기복’ 아닌 직관으로 승화된 수행 제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서 기획한 부처님의 십대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장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경전과 주석서를 읽으면서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제자하면 피상적으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련,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 등 이렇게 ‘제일’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실제로 경전을 통해 부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리불 존자의 삶은 겸손하고, 고결하고, 인간적인 진솔한 맛이 묻어나며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이치와 우주의 이법을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깨침의 종교이며 더 줄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다면 불교가 한 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지혜의 나뭇잎입니다. 지혜의 발현이며 지혜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하는 사리불 존자는 지혜를 완성하고 그 지혜를 온전하게 자비로써 행하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 중의 제자였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왕사부근 부근 브리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옆 동네에서 목건련 존자도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두 존자가 태어나면서 마을이 환해지고 광명으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축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사리불 존자 마음속에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고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건련 존자에게 “이것이 참다운 즐거움인가?”라고 물어보니 목건련 존자도 “이런 참다운 행복이 아

닌 것 같다”고 답합니다. 두 청년은 축제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뒤 참다운 삶,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살인기를 계속 권력하면서 다니다가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하나인 산자야의 제자가 됩니다. 산자야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자 두 수행자는 유행을 합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 보니 얼굴이 맑고 빛이 나는 사문을 만납니다. 두 수행자가 사문의 옷자락을 잡고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타마 싯달타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는 고타마 부처님의 진리를 아직도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못해 여러분들께 법을 전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두 수행자는 사문의 겸손한 태도에 감복하며 조금이라도 좋으니 부처님 법을 들려 주기를 청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변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첫 강좌에는 1000여명이 운집, 복도 통로까지 꽂 차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박재완 기자

축제 즐기다 인생의 가치에 의문...부처님께 귀의 부지런하고 겸손한 대중의 귀감...누구에게나 배워

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서로 인과연이 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현상들이 생성, 지속, 소멸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리불 존자는 앞 첫 구절에서 바로 수다원가에 듭니다. 그 전에 벌써 많은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을 찾아 제자가 됩니다.

이 두 분은 교단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의 시생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전혀 자기 스스로가 상수제자이며 부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에서 탁발을 하는 중에 날이 저물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왔다갔다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리불 존자는 뒤로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미승들을 돌보아 주다가 늦게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리불 존자가 주무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자기 가사자락을 펴서 나무에 걸고 거자를 깔고 텐트를 만들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리불 존자는 항상 대중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대중들을 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리불 존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리불 존자가 길을 빨리 걷다보니 속가사가 걸려 사 밑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7세 된 사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동자승에게 공손하게 합장하고 “참 고맙습니다. 동자시어, 저는 이런 고귀한 가르침들을 어떤 분한테도 받들어

서 행하겠습니다”하고 절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지위를 막론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리불은 교단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모든 스님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더라도 단체 조직사회에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루는 몇몇 스님들이 사리불 존자를 골방을 먹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아 ‘정말 화를 내지 않겠나’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개구쟁이 스님이 뒤에서 나무로 사리불 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턱 턱 걸어갔습니다. 도리어 때린 사람들이 무안해졌고 그들은 사리불 존자

사, 신부님에게도 마음 말바탕에는 1차적인 신앙형태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신앙형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하등종교, 원시적인 종교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켜줬을 때 고등종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선을 잘하시는 분들은 직관의 힘이 커져서 삶과 우주만법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큰 교회를 하고 가셨던 서울, 청화 큰스님 같은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직관으로 승화된 수행의 힘이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이론이나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한 차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형태로 커갈 수 있는 바탕은 수행에 있습니다. 이 고평을 놓지 않고 일상 삶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와 같이 지혜 갖춘 자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불국정토가 됩니다.

질의응답

문 : 부처님 제자중에서 각각 특징을 지어 10대제자를 설정했을때 언제이며 특징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10대제자 설정시기는 문헌적으로 정확히 찾을수는 없고, 팔리어 경전에 7대제자를 열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 두타, 설법제일 등 정확한 명기된 것으로 보아 부처님 당시에 이미 제자들의 특징들이 확연하게 정해졌고 또 부처님 제자들끼리 서로 통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리불 존자보다 먼저 출가하고 연대가 높은 제자가 있는데 왜 상수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상수제자는 이 생애 수행하고 원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목한 것이 아니다. 사리불 존자가 상수제자가 된 것은 무수한 생 동안에 계속 그런 행을 했고 지혜를 쌓았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나타날 뿐이다”고 답합니다. 부루나 존자의 경우 항상 틈만 있으면 설법하러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스님은 설법 잘하고 그렇게 부른것이 인정 된 것입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20,000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대중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훔치고 갈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풀어드려신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비탈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쫓겨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층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데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